부산 아시안게임 기금 마련, 화물차 광고 영업 계획 수정

- 영업대행고려광고, 광고주협회의문제제기수용-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금 마련을 위해 화물차 외부광고 영업권을 한시적으로 허용, 옥외광고 대행사인 고려광고에 위탁했다.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는 영업방법에 대해 광고주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고려광고는 광고주협회 의견을 수용해 영업방법을 수정키로 하였다.

고려광고, 광고주협회 입장 전격 수용

고려광고가 화물차 외부광고에 대한 광고영업 전략을 신매체 개발로 전면 수정함에 따라 화물차 외부광고에 대한 논란이 해결될기미를찾고있다.

그동안 한국광고주협회와 고려광고는 수차례 협상을 통해 지입차량에 대한 화물차 외부광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왔다.

협상과정에서 고려광고는 기존 지입차량에 대한 화물차 외부광고 문제를 고발 등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광고영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광고주협회 또한 새로운 매체개발 등을 통해 광고유치를추진할 것을 고려광고측에 제안했었다.

고려광고는한국광고주협회의입장을충분히수용해한국광고주협회 회원사의 기존 화물차에 대해서는 광고영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택배차량, 우체국 및 담배인삼공사 등의 화물차를 신규 광고매체로 개발하여 광고영업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화물차 외부광고를 둘러싼 광고주와의 마찰은 일단피할수있게되었으나문제는이같은일이앞으로도재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광고를 통해기금을 쉽게 조성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없이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 특별법 제정이 계속해서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기금조성 위한 특별법 제정은 안된다

금번 화물차 외부광고 문제의 발단은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비용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외부광고 사업권을 옥외광고대행사인 '고려광고 '(인풍 계열)에 허가해 주면서 발생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는 화물차 외부광고를 자사소유차량에만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입차량에 대해 화물차 외부에 자사광고를해온기업들의오랜관행을잘알면서이를사실상묵인해오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정 사업자를 선정, 화물차외부광고를 독점할 수 있도록 전권을 허가해주면서 문제가 발생한것.

즉, 특정대행사를 통해야만 합법화된다는 논리는 정부가 '특혜 '와 '면제부 '를 동시에 제공한 셈이다.

더욱이 아시안게임 조직위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화물차 외부광고에 대한 협조공문을발송, 고려광고의 광고영업을 지원하였다.

정부스스로일반법에서금지하고있는사항에 대해특정 사업자를 통하면 할 수 있다는 특별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잘못된 제도나 지나친 규제는 그 자체를 개선해야하는 것이지, 특별법이라는 명목으로 특수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기회에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동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무리한 규제조항을 두고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방법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수단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금번 화물차광고의 경우도 실제 거의 모든 기업들이 물류운송의 효율성과 경비절감을 위해 물류부분을 분사화하거나 또는 물류전문회사와 계약을 통해 물류운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주는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것이다.

한국광고주협회는 금번 화물차 외부광고 논란을 계기로 동 제도의 원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취재 · 곽 혁